



의정부주보

• 발행인 손희승 • 편집 홍보국 • 주소 11674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61 의정부교구청 • 전화 031-850-1400(대표), 1433-5(홍보국)

❖❖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 세계 평화의 날 ❖❖



William Bouguereau(1825-1905), <The Virgin With Angels>, 1900년

✦ 매일 오전 8시 <가정을 위한 기도>, 저녁 9시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주모경>을 바칩시다. ✦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에게 평화를 주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희망의 희년인 새해를 시작하며, 저는 모든 이에게 진심으로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가톨릭교회는 올해, 희망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는 행사인 희년을 거행합니다. 이 은총의 해를 시작하며, 의인 아벨이 외치는 피의 울부짖음처럼(창세 4,10 참조) 이 세상 수많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도움을 청하는 절박한 호소”에 귀 기울이기를 요청합니다. 지구를 착취하고 이웃을 억압하는 불의는 “죄의 구조”의 형태로 나타나곤 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일부 사람들의 불의에서 비롯될 뿐만 아니라 공모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강화되고 지속됩니다. 우리는 인류 가족을 괴롭히는 갈등을 부채질하는 행태들을 비롯하여 우리 공동의 집인 지구가 겪어온 파괴에 대하여 어떤 식으로든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모든 종류의 불평등, 이주민에 대한 비인간적 처우, 환경 파괴, 허위 정보로 의도적으로 조성된 혼란, 모든 유형의 대화 거부, 군수 산업에 쏟아부은 막대한 재정 지출에 대하여 불의의 사슬을 끊고 하느님의 정의를 선포하라고 부르심 받고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가끔 어찌다가 하는 자선 활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려면 문화적이며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희년은 지상 재화가 소수 특권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이를 위한 것임을 일깨우고, 불의와 불평등에 맞서는 수많은 변화를 이끌어 줍니다. 우리는 먼저, 각자가 지닌 뉘에 대해 주님께 감사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하지 못하면 하느님의 선물들을 인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무한한 자비로 죄 많은 인류를 내치지 않으시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이에게 구원의 용서와 생명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저희 잘못을 용서하시고”(마태 6,12)라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간과하면, 힘이 곧 정의가 되는 착취와 억압의 논리가 다른 이들과 우리의 관계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상호 연결된 지구촌에서 연대와 상호 의존의 정신이 사라지면 불의가 생겨납니다. 이러한 불의는 가난한 국가들을 덮어 빠뜨리는 부패로 더욱 심화합니다. 외채와 생태적 빚은 실제로 가난한 나라의 부채 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이번 희년의 정신으로, 저는 국제 사회가 북반구와 남반구 사이 생태적 빚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외채를 탕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촉구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가 한 분이신 하느님 아버지의 아들딸이고 그분께 죄를 지었으며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은총의 해를 시작하면서, 저는 세상 만민이 삶의 존엄성을 되찾고 희망의 길을 다시 나설 수 있도록 세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 2000년 대희년에 하신 호소, 곧 “여러 국가들의 미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국제적 부채를 완전히 탕감해 주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감면해 주는 것을” 배려해 보자는 호소를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에 새로운 금융 체계가 고안되어 민족들의 연대와 화합에 기초한 ‘세계 금융 현장’을 만드는 것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둘째, 잉태되는 순간부터 자연사에 이르기까지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존중하겠다는 확고한 노력을 요청합니다. 특히 생명의 문화를 증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초대합니다. 또한 모든 나라가 사형 제도를 폐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전쟁으로 점철된 이 시대에, 군비에 들어가는 공적 자금의 일정 비율을 국제 기금 설립을 위하여 사용하기를 제안합니다. 이 기금으로 기아 근절, 빈곤국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의 증진과 기후 위기 대처를 목표로 하는 교육 활동을 지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5년이 평화가 꽃피는 한 해가 되기를 빕니다! 우리 모두 하느님께서 무장 해제된 마음에 베풀어 주시는 참 평화를 찾아 나섭시다. 무장 해제된 마음은 내것 네것 따지지 않는 마음이며 이기심을 누그러뜨리고 타인에게 기꺼이 손 뻗으려는 마음입니다. 마음의 무장 해제는 모든 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첫째부터 끝까지, 큰 이부터 작은 이까지, 부유한 사람부터 가난한 사람까지 모든 사람이 참여하여야 합니다. 때로는 아주 단순한 것들 곧, “미소, 우정의 작은 몸짓, 친절함 눈길, 기꺼이 귀 기울이는 경청, 선행”으로도 가능합니다. 끝으로, 각국과 정부의 수반, 국제기구 지도자, 다양한 종교 지도자, 선의를 지닌 모든 이에게 저의 진심 어린 새해 인사를 보내며 하느님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에게 잘못된 이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주소서.
 용서의 이러한 순환 안에서 저희에게 주님의 평화를 주소서.
 이 평화는, 마음의 빗장을 푼 이들,
 희망 안에서 형제자매들의 빛을 탕감하는 이들,
 주님께 지은 죄를 두려움 없이 고백하는 이들,
 가난한 이들의 울부짖음에 귀를 닫아 버리지 않는 이들에게
 오직 주님만이 베푸실 수 있는 평화이오니,
 주님, 저희에게 주님의 평화를 주소서. 🙏

바티칸에서,
 2024년 12월 8일

Francisco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입당송

거룩하신 어머니, 찬미받으소서. 당신은 하늘과 땅을 영원히 다스리시는 임금님을 낳으셨나이다.

제1독서 민수 6,22-27

화답송 시편 67(66),2-3.5.6과 8(◎ 2ㄱ)

◎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당신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소서. 당신의 길을 세상이 알고, 당신의 구원을 만민이 알게 하소서. ◎
- 당신이 민족들을 올바로 심판하시고, 세상의 겨레들을 이끄시니, 겨레들이 기뻐하고 환호하리이다. ◎
- 하느님,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느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세상 끝 모든 곳이 그분을 경외하리라. ◎

제2독서 갈라 4,4-7

복음 환호송 히브 1,1-2 참조

◎ **알렐루야.**

- 하느님이 예전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네. ◎

복음 루카 2,16-21

영성체송 히브 13,8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든 오늘도 또 영원히 같은 분이시다.